

원자력 문화 진흥의 새로운 도약

지난 96년은 사회적으로 민 주화와 지방 자치제가 진전 되면서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지역의 반대가 거세져 많은 사회적 문제가 돌출되었다.

특히 영광 5·6호기 건축 허가 취소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및 집단 이 기주의의 확산은 장기 전원 개발 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입지 선정 등 원자력 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등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 기반 확충을 위한 대국민 PA 활동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홍보 문화 사업을 적극 펼쳐왔다.

새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원자력계의 주변 환경은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과 맞

물려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지역의 요구와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난해 우리 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식 회원국 가입으로 개방화와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 등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의무 이행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원자력 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등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새해에도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원자력 문화 진흥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함으로써 21세기 원자력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닦아놓을 것이다.

원자력 홍보 체계 개선으로 사업 기능 강화

올해로 창립 5년째를 맞이하는 우

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1세기를 바라보며 원자력 민간 홍보 주체로서 보다 성숙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홍보 체계를 개선하여 사업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원자력 사업 환경 및 여건 변동에 따른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체계를 전문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주로 하면서 지역 홍보의 취약점을 보강해 나가고, 차세대 홍보를 위한 전담 기능을 부여하는 등 주요 지역 및 계층에 대한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홍보인으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해 나갈 것이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원자력 이동 전시관

이벤트성 홍보 사업의 지속적 개발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해 <생활과 원자력>, <원자력문화 정보> 등 이미 발행되고 있는 정기 간행물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꾸미는 한편, 원자력 총서 규모의 단행본과 동화·만화·리플렛·월차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홍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원자력 이해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신규 사업 개발 및 끊임없는 홍보 기법의 연마와 함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체제로서 변모하는 사회적 여건에 합당한 사업을 선택 수행하고, 집단적인 홍보 방법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 공개 토론회' 등 이벤트성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전기에너지관·원자력이동전시관 등 전시 홍보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는 한편,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원전 시찰과 강습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평생교육원에 원자력 강좌 개설,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원자력 강사를 파견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원자력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원전 지역 주민 이해 기반 조성

지방 자치 시대의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홍보 기법을 도입하여 원자력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려나갈 것이다.

특히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영광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영광원자력문화진흥회」 등 원전 지역에서의 친원전 자생 단체의 추가 결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원전 지역 주민의 이해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 한층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 등 여성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노래 자랑 대회와 초·중·고생 사생 대회 등 다양한 지역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사회와 밀착된 원자력 문화 공간을 넓혀 나갈 것이다.

차세대 교육 사업 강화

차세대 교육의 강화로 장기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교원, 근로 청소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및 우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학습회와 청소년 원자력 캠프, 중등 교사 워크숍, 대학교수 세미나 등 교육 문화 행사를 활성화하며, 우수 장학생 선발과 대학생 원자력 논문 공모, 중고생 작문 공모 및 시상 등 장학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특히 교육 방송 매체를 활용한 영상 사업의 전개와 함께 교육용 영상물 제작·배포, 교사들에 대한 강습회, 현장 견학과 원자력 캠프 개설 등 각종 문화 행사의 확대에 이들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초·중·고교 교과서에 원자력 관련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 과정 개편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의 강화

계량화가 힘든 홍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치를 구하는 사업 평가 및 분석 능력을 높이고, 일반 국민과 원전 및 후보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의식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원자력 PA 활동의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 정보 수집 및 반핵 자료에 대한 조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여론 향배를 파



전국 중·고생 원자력 작문 시상식 모습

악하기 위한 여론 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자력자료실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등 원자력 PA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올해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궁극적인 사업 목표인 원자력 문화 진흥의 새로운 도약을 지향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설립 5년째를 맞이하여 원자력 홍보 주체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진취

적이고 발전적인 재단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전직원이 자질 향상을 통해 홍보 전문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사내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나갈 것이다.

또한 원자력 산업이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나아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첨단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국민 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뜻깊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